

# KERI Brief

##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트**럼프의 조세정책 공약은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약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최저한세율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계개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되어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그리고 일자리는 약 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우리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더욱 커져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도 1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3%p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

인세율이 미국보다 10%p 높아진다.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국내 투자 감소가 매우 클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의 세계개편은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세계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연간 3백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여 국제간 세율격차를 20%p 줄인다면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춰 국제간 조세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1. 논의 배경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로 기존의 세계질서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등 극단적인 대외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는 보호주의와 배타주의로 회귀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각국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트럼프의 조세정책 공약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상관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다.

- 트럼프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한다면 미국은 세계 자본을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양질의 노동력, 기업 친화적인 제도 등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어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해도 자본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

○ 여기에 법인세율마저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춘다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자본에 비해 노동의 국제간 이동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낮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현상은 보편화되고 있음.

○ 소득세 인하는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높인다면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현재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3%p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린다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p나 높아져 한순간에 23%p의 변화가 발생함.

-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미국이 우리보다 1.6%p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33%로 내린다면 우리보다 5%p 낮아짐.

- 미국의 현행 상속세율 40%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경우 미국으로의 소득이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도널드 트럼프의 조세정책

### 1. 법인세

□ 트럼프의 기업관련 세제개혁은 세율인하, 최저한세율 폐지, 비과세감면 폐지, 미국 영토로 송금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선 인상 등을 꼽을 수 있음.

□ 법인세율 최고세율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표 1>에서 보듯이 8단계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세율은 35%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과세표준이 3.5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13%~35%의 확고한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지만, 3.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은 34%~35%로 설계되어 소득금액 차이에 대한 세율 격차가 크지 않아 단일 과세체계와 다름없이 운영됨.

- 트럼프의 공약은 최고세율을 15%로 낮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과세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음.

○ TPC(Tax Policy Cen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현행 7단계 과세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과세체계(flat tax rate)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최저한세율 현행 20% 폐지

-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납세자와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임.

○ EY(2015)에서 발행하는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을 보면 최저한세율을 도입한 국가는 엘살바도르(25%~30%), 헝가리(10%~20%), 모리셔스(Mauritus, 7.5%), 푸에르토리코(30%), 대만(12%), 미국(20%), 한국(17%) 등 7개국에 그치고 있음.

<표 1> 미국 법인 소득 세율

과세수입(USD)	세율(%)
0 ~ 50,000	15%
50,000 ~ 75,000	\$7,500 + \$50,000 이상의 25%
75,000 ~ 100,000	\$13,750 + \$75,000 이상의 34%
100,000 ~ 335,000	\$22,250 + \$100,000 이상의 39%
335,000 ~ 10,000,000	\$113,900 + \$335,000 이상의 34%
10,000,000 ~ 15,000,000	\$3,400,000 + \$10,000,000 이상의 35%
15,000,000 ~ 18,333,333	\$5,150,000 + \$15,000,000 이상의 38%
18,333,333 ~	35%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2015.

□ R&D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과 어린이 보육(day care)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 트럼프 공약은 폐지될 조세지출 항목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R&D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할 전망이다)

-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 및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인상

□ 미국 영토로 송금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국내로 송금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소득에 대해 10년간 10%의 세금을 부과

- 10년 이후에는 본국으로 송금될 때 과세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10%의 세금을 부과

□ 미국 내 제조업체에 대해 이자비용공제와 자본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공제 제도 중 선택 허용

## 2. 개인 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과세단계 축소와 세율 인하, 기준공제액 인상, 개별공제를 폐지, 보육관련 세액공제 도입, 최저한세를 폐지로 요약됨.

□ 과세구간 축소, 세율 인하, 개인소득과세 체계에 자본소득 포함

- 미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는 <표 2>에서 보듯이 7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율은 10%~39.6%가 적용되고 있으며, 납세신고의무자는 독신, 부부합산, 가구주로 구성되어 있음.

- 트럼프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표 3>에서 보듯이 과세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12%~33%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과세신고의무자에서 세대주를 제외하고 독신과 부부합산만 과세신고를 하도록 개편할 예정임.

○ 독신 신고자의 경우 \$37,500 이하의 과세소득에 12%, \$37,500~\$112,500 소득에 25%, \$112,500 이상의 소득에 33% 세율을 적용할 계획임.

○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75,000 이하 소득에 12%, \$75,000~\$225,000 소득에 25%, \$225,000 이상 소득에 33%를 적용할 계획임.

-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개인소득과세 체계에 포함하여 개인소득과세 구간에 따라 최고 20%까지 과세할 계획

1) Nunns et al.(2015), "An Analysis of Donald Trump's Tax Plan", Tax Policy Center(2015)은 21개의 공제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미국의 현행 개인소득 과세체계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USD)			세율(%)
독신 신고자	부부합산 신고자	가구주 신고자	
0 ~ 9,225	0 ~ 18,450	0 ~ 13,150	10
9,225 ~ 37,450	18,450 ~ 74,900	13,150 ~ 50,200	15
37,450 ~ 90,750	74,900 ~ 151,200	50,200 ~ 129,600	25
90,750 ~ 189,300	151,200 ~ 230,450	129,600 ~ 209,850	28
189,300 ~ 411,500	230,450 ~ 411,500	209,850 ~ 411,500	33
411,500 ~ 413,200	411,500 ~ 464,850	411,500 ~ 439,000	35
413,200 ~	464,850 ~	439,000 ~	39.6

출처: OECD, Taxing Wages 2016, 2016. 4.

〈표 3〉 트럼프의 개인소득 과세체계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USD)		세율(%)	
독신 신고자	부부합산 신고자	일반소득	자본소득
0 ~ 37,500	0 ~ 75,000	12	0
37,500 ~ 112,500	75,000 ~ 225,000	25	15
112,500 ~	225,000 ~	33	20

자료: Tax Foundation(2016), "Details and Analysis of the Donald Trump Tax Reform Plan".

□ 기준공제액 상향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 기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현행 \$6,300에서 \$15,000으로 인상하고 부부합산의 경우 현행 \$12,600에서 \$30,000로 인상
- 개인의 비과세항목을 폐지하는 한편 보육관련 세금 공제(provisions) 제도를 도입
  - 고소득자(독신 \$200,000, 부부합산 \$250,000)의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3.8%의 세율이 부과되던 현행 제도를 폐지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경우 독신의 최고공제 금액은 \$100,000로 제한하고 부부합산의 경우는 \$200,000로 제한
  - 어린이 보육비용을 미국의 평균수준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한편 소득이 독신 \$250,000 이상과 부부합산 \$500,000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보육비용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적용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육비용으로 연간 \$1,200 지급
- 어린이 보육, 부모 봉양, 등록금에 대해 50:50의 메칭펀드로 조성되는 저축계좌 도입
- 최저한세율 폐지

3.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 상속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속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 가치를 평가하고 최초 구매 당시의 가치와의 차액에 자본 이득세를 부과
- 자산가치 평가의 재조정(step-up in base) 불허함으로써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의 이득을 축소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임.<sup>2)</sup>

4. 평가

(1) 세수입 효과

□ 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총 세수입은 4,368십억 달러~5,606십억 달러 감소할 전망

- Tax Foundation은 세율변화가 개인 및 법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소비세와 기타 세수입이 변화는 동태적인 효과를 감안할 경우 향

후 10년간 총 세수입은 2,640십억 달러~3,932십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개인소득세의 세수입은 2,192십억 달러~3,730십억 달러 감소하고, 법인세수입은 1,936십억 달러, 상속증여세수입은 240십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2) 소득재분배 효과

□ Tax Foundation(2016)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계층의 세후소득 증가율이 하위 계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도 클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율 인하로 가치분소득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3.1%~4.3%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8.2%~10.7% 증가할 전망

- 2) 부모(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치를 상속시점 또는 상속인이 자산 처분 시점에 이를 재평가하여 실제 취득당시보다 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step-in basis라고 하며 이를 통해 세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표 4〉 트럼프 세제개혁에 따른 향후 10년(2016~2026)간 세수효과

(단위: Billion of USD)

	정태적 세수 효과	동태적 세수입 효과
개인소득세	-2,192 ~ -3,730	-1,058 ~ -2,458
지출급여세(payroll tax)	0	520 ~ 612
법인세	-1,936	-1,958 ~ -1,959
소비세	0	44 ~ 52
상속·증여세	-240	-240
기타	0	52 ~ 62
합계	-4,368 ~ -5,906	-2640 ~ -3932

주: 1) 동태적 세수입 효과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세수효과를 의미하며, 정태적 세수효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세율 변화에 따른 순수한 세수입 변화를 의미함.

2) 트럼프의 공약이 불분명하여 세율변화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가정하여 추정하고 있어 세수입변화가 범위를 갖고 있음.

자료: Tax Foundation(2016), "Details and Analysis of the Donald Trump Tax Reform Plan".

- 최고세율 인하폭이 하위세율 인하폭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도 8.1%나 증가할 전망
  -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세수입 변화를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소득 하위 80%의 계층의 세후소득은 0.8~1.9%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의 계층은 4.4% 증가할 전망
  - 감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하위 계층의 소득 하위 80%의 세후소득은 6.9%~8.7%까지 증가하여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트럼프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하향평준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보다는 파이를 키워 모든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소득재분배가 개선

되지만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도 함께 감소하여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성장이 둔화될 때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경제 활성화 효과**

□ Tax Foundation(2016)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 GDP는 6.9%, 투자는 20.1%, 임금은 5.4%, 고용은 1,80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개인소득세 인하는 공급측면에서 실질임금 증가를 의미하며 수요측면에서는 노동비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향상과 고용주의 고용 유인이 증가하여 결국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과 투자가 증가하여 GDP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표 5〉 트럼프 세제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Tax Foundation 추정)**

가처분 소득변화		
Income Group	Static	Dynamic
0% to 20%	1.2%	6.9% / 8.1%
20% to 40%	0.8%	6.7% / 7.9%
40% to 60%	1.3%	7.7% / 9.0%
60% to 80%	1.9%	7.9% / 9.0%
80% to 100%	4.4% / 6.5%	8.7% / 12.3%
90% to 100%	5.4% / 8.3%	9.3% / 13.7%
99% to 100%	10.2% / 16.0%	12.2% / 19.9%
TOTAL	3.1% / 4.3%	8.2% / 10.7%

Source: Tax Foundation, Taxes and Growth Model(March 2016 version)

Note: Returns with Positive Income. When two numbers are listed in a column, the number on the left reflects the higher-rate assumption and the number on the right reflects the lower-rate assumption.

〈표 6〉 트럼프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Tax Foundation 추정)

GDP	6.9%~ 8.2%
투자	20.1%~23.9%
임금	5.4%~ 6.3%
일자리 창출(천 명)	1,807~ 2,155

Source: Tax Foundation Taxes and Growth Model, March 2016.

Note: Numbers are listed with the higher-rate assumption first and the lower-rate assumption second.

**(4) 총평**

□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율 인하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을 추구하고 있어 조세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

-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최저한세율 폐지하는 것도 조세논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으로 야기되는 비납세자와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최저한세율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을 낮춰 근로유인과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

-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입 확대와 유출 축소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로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클린턴의 공약과 같이 버핏세 또는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수 있지만 경제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소득도 함께 감소하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부유세 도입이 경제를 위축시켜 성장이 둔화되면 숙련노동자보다는 비숙련 노동자의 해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반해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III. 경제적 영향 분석

####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 ▣ 분석모형

-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KERI-CGE 모형을 이용함.<sup>3)</sup>
  - KERI-CGE 모형은 다지역-다산업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글로벌 CGE 모형으로 분류됨.
  - 분석대상지역은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 총 11개 지역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산업은 농림수산업, 에너지산업, 음식료,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건설, 물류산업, 서비스업 등 총 14개 산업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기간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총 20기간으로 구성됨.
- KERI-CGE 모형은 글로벌 CGE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정책변화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각 지역은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자본 거래를 통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정책변화는 재화와 자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타 지역의 생산, 투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관 효과를 유발하게 됨.
  -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 → 법인세율의 국제간 격차 증가 → 미국 내 자본 사용자 비용 감소 & 기대수익률 증가 → 반면 타 지역의 자본사용자 비용 증가 & 기대수익률 하락 →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증가
  - 미국의 국외 자본유출 감소 & 유입 증가 → 투자 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 및 투자증가 → 생산증가

○ 반대로 타 지역의 자본유출 증가 → 투자감소 → 생산감소 → 소득감소 → 소비 및 투자감소

-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생산자의 노동비용을 낮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이 증가하여 타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 트럼프 세제개혁에 따른 연도별 세수입 변화에 대한 가정

- Tax Foundation(2016)는 <표 4>와 같이 트럼프의 세제개혁에 따른 10년간의 세수입을 추정하고 있음.
  - <표 4>에서 보듯이 개인소득세는 10년간 2,192십억 달러~3,730십억 달러 감소하고, 법인세수는 1,936십억 달러, 상속증여세수는 240십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수가 범위를 가지고 추정되는 이유는 트럼프의 공약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율변화를 초고 또는 최저 수준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임.
- 본 연구는 Tax Foundation(2016)의 10년간 세수입을 <표 7>과 같이 연도별로 배분하고 세제개편 효과를 분석하였음.
  - 범위로 주어진 개인소득세수는 평균 값 2,961십억 달러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배분하였음.

3) 분석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경엽·송원근(2009) 참조

〈표 7〉 트럼프 세제개혁에 따른 연도별 세수입 변화 가정(10억 USD)

	법인세수	개인소득세수 <sup>2)</sup>	상속증여세수
2017	-161	-247	-20
2018	-168	-256	-21
2019	-174	-267	-22
2020	-181	-277	-22
2021	-189	-289	-23
2022	-196	-300	-24
2023	-204	-312	-25
2024	-212	-325	-26
2025	-221	-338	-27
2026	-230	-351	-28
합계 <sup>1)</sup>	-1,936	-2,961	-240

주: 1) Tax Foundation에서 추정된 2017~2067간의 세목별 세수입(static 기준)을 연도별로 연평균 3%씩 증가하도록 배분

2) Tax Foundation에서 제시한 개인소득세수입은 세율변동에 따라 -2,192십억~3,730 십억 달러의 범위로 주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의 평균 값 2,961십억 달러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배분하였음.

## 2. 트럼프의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트럼프의 공약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하 되면 미국의 GDP는 10.4%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GDP는 1.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트럼프의 법인세제만 시행될 경우 한국의 GDP는 0.9%, 투자는 1.8%, 임금은 0.2% 감소하고 고용은 64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 이에 반해 미국의 GDP는 6.5%, 투자는 33.9%, 임금은 1.7% 증가하고 고용은 2,04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이 소득세제만 개편할 경우 한국의 GDP는 0.9%, 투자 1.1%, 임금 0.2% 감소하고 일자리는 38.6천 명 감소할 전망

○ 미국의 GDP는 4.0%, 투자는 24.2%, 임금은 2.9%, 일자리는 1,126천 명 증가할 전망

-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개편할 경우 한국의 GDP는 1.9%, 투자 3.0%, 임금 0.4% 감소하고 일자리는 106.8천 명 감소할 전망

○ 반면 미국의 GDP는 10.4%, 투자는 58.5%, 임금은 4.6% 증가하고, 일자리는 3,044.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노동에 비해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본 연구가 노동의 국제간 이동에 제약을 두고 분석하였지만, 미국이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미국의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내의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8〉 트럼프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2017~2026년의 연평균)

(단위: %, 천 명)

	미국의 법인세제 개편		미국의 소득세제 개편		미국의 법인세제와 소득세제 개편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GDP(%)	6.5	-0.9	4.0	-0.9	10.4	-1.9
투자(%)	33.9	-1.8	24.2	-1.1	58.5	-3.0
임금(%)	1.7	-0.2	2.9	-0.2	4.6	-0.4
고용(천 명)	2,046.4	-64.0	1,126.0	-38.6	3,044.6	-106.8

### 3.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트럼프의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현재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세수효과는 연간 3조 6,000억 원과 9,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sup>4)</sup>

○ 본 연구는 과세표준 500억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소득이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1%로 인상하는 안을 가정하고 분석하였음.

□ 우리가 법인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미국과의 세율 격차가 역전되어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GDP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 현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인세율 최고세율 격차는 13%p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낮음.

○ 하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린다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p 높아져 변동 폭이 23%p에 달하게 됨.

-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됨에 따라 미국으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는 11.9% 감소하고, GDP는 4.1% 감소하고, 고용은 316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표 9〉를 〈표 8〉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GDP, 투자, 고용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어 투자는 2.4%, GDP는 1.3% 감소하며, 고용은 64.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개편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법인세와 소득세율 각각 3%p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4)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인용. 소득세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편안에 기초한 것임.

- <표 8>에서 보듯이 미국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우리는 반대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균 5.4% 감소하고, 투자는 14.3% 감소할 전망이며 임금과 고용은 각각 1.1%와 381.9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 투자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우리와 미국의 법인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임.

□ 우리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상되고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연도별 GDP, 투자, 고용변화는 <그림 1>~<그림

3>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입변화는 <표 7>과 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미국의 GDP, 투자, 고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가 추정되어 있지 않아 법인세수는 3.6조 원 소득세수입은 9,230억 원으로 모든 기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의 GDP, 투자, 고용의 연도별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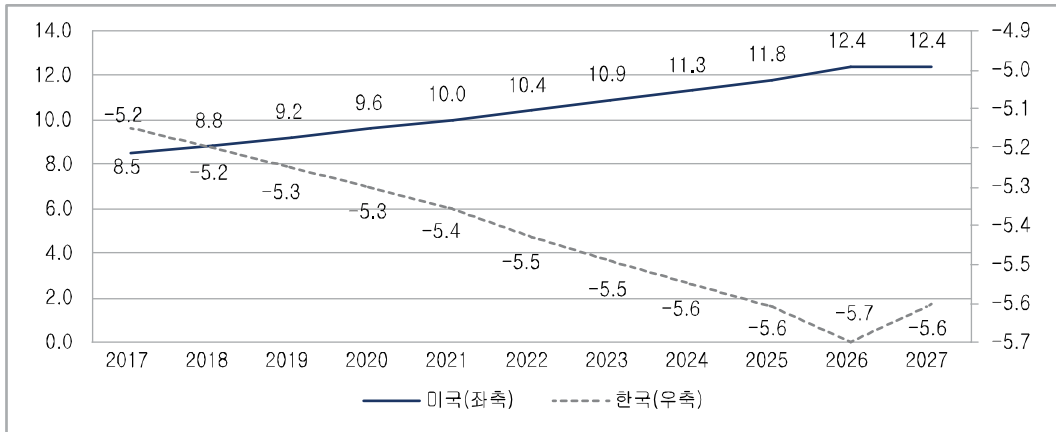
<표 9>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트럼프 세제개편이 한국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천 명)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GDP	6.5	-4.1	4.0	-1.3	10.4	-5.4
투자	34.0	-11.9	24.2	-2.4	58.6	-14.3
임금	1.7	-0.7	2.9	-0.4	4.6	-1.1
일자리	2,057.8	-315.5	1,127.3	-64.3	3,056.8	-3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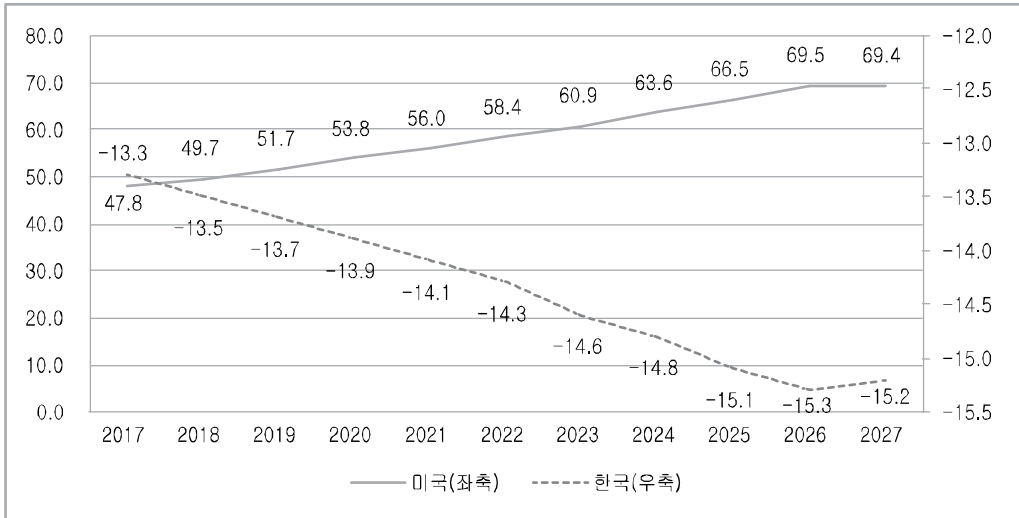
<그림 1>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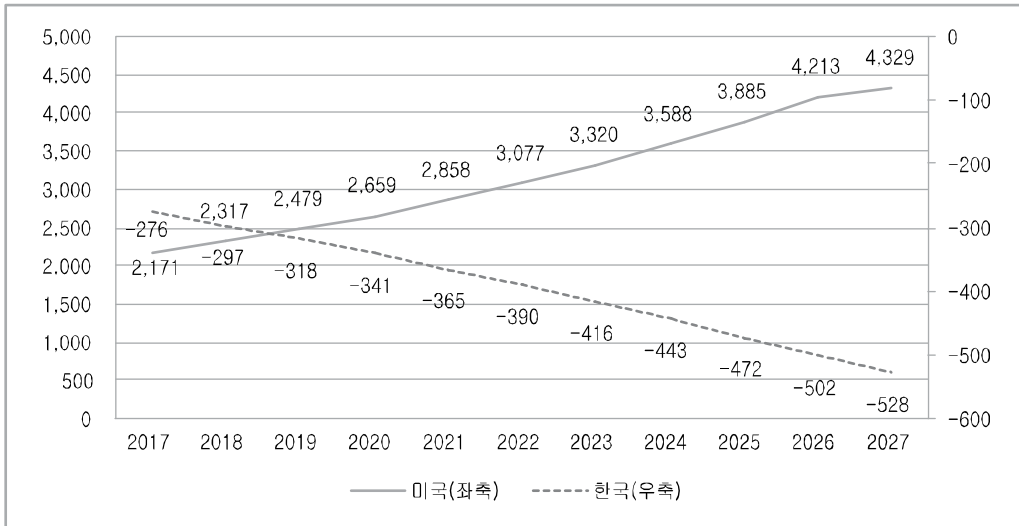
〈그림 2〉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변화

(단위: %)



〈그림 3〉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 IV. 시사점

##### □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한 것보다 클 전망이다.

- 법인세율이 15%까지 인하될 경우 미국으로의 자본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자본을 유치해왔으나, 최근 주요 경쟁국(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5)</sup>

○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이러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GDP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더욱 심화될 국제적 조세경쟁을 해쳐나가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 □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오히려 인하하는 정책이 요구됨 있음.

-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우리의 증세정책이 맞물릴 경우 예상되는 투자 감소는 14.3%에 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GDP는 5.4% 감소하고 일자리는 38만 2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복지재원 마련하는데 있거나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게 됨.

5) 2000년 이후 영국은 법인세율을 8%p 인하하였으며, 일본은 7.4%p, 캐나다는 4.7%p 인하하는 등 OECD 34개국 중 19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하였음.

**[참고문헌]**

조경엽·송원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한·EU FTA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09-01, 한국경제연구원,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2015.

Nunns et al., “An Analysis of Donald Trump’s Tax Plan”, Tax Policy Center, 2015.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 2015.

OECD, “Taxing Wages 2016”, 2016.

\_\_\_\_\_, “Tax Database: Corporate Tax”.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Donald Trump Tax Reform Plan”, 2016.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1월 2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